연합뉴스TV

미술, 일상을 끼적이다...'소피 칼 개인전'

기사입력 2013-03-16 11:55

미술, 일상을 끼적이다...'소피 칼 개인전'

개념미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인데요, 세계적인 개념미술가 소피 칼이 처음으로 내한했습니다. 송광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것들. 하지만 때론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한 개인에겐 엄청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작가 소피 칼에게 온 편지도 그랬습니다.

남자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헤어지자는 말 같은데, 끝이 미묘했습니다. 의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외교관, 범죄학자 등 107명의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이별의 편지는 베니스비엔날레에 소개돼 관객과 평론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소피 칼]

"I don't think reveal anything. What I reveal is what's happened to everybody. everybody see one day they got break-up letter or breakup phone call..."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소피 칼의 개인전에는 사진, 영상 등을 결합한 개념미술의 대표작이 선보입니다. 특히 3편의 작품으로 이뤄진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시리즈는 완성 후 세계 최초로 전

체 작품을 공개합니다.

생존 작가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퐁피두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가진 그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발견합니다. 편지뿐 아니라 점쟁이를 만나 점괘를 듣는 과정도 하나의 작품. 명확한 콘셉트로 작업을 시작하지만 결과는 작가 본인도 모릅니다.

[소피 칼]

"What I like is to establish rules of the game that I really controll, you know, I decide everything.....that space, I controll let things happen and see what's happened. so it's mixture to establish something really strict and inside is let things happen"

일상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개념 예술. 익숙지 않은 이야기의 매력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뉴스와이 송광호입니다.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여야, 심야 정부조직법 실무협상...접점 못찾아
☞배우 신현준, 12살 연하 재미교포와 5월 결혼
☞미국, 北미사일 대비 요격미사일 추가배치(종합2보)
☞김연아 "쇼트프로그램 잘해 자신감 얻었다"
☞갤럭시S4 "혁명적 아니다" vs. "애플에 충격줄 듯"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22&aid=0000006530